



201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열)

[11월 16일(일) 오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사회계열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카스트 제도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전 600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카스트 제도 하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및 직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세습되었고, 다른 카스트 간에는 결혼, 식사, 흡연 등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의 ‘업보 윤회설’에 의해 정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인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례로, 힌두 지참금 관습은 가족과 친족, 마을 생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브라만 중심의 사상뿐 아니라 인도 사회와 문화의 밑바탕을 이루는 제도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형적인 제도이다. 카스트 내혼제(內婚制)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혼인은 원칙적으로 동등혼(同等婚)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를 주는 쪽 집단이 여자를 받는 쪽 집단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불평등 관계는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 각종 의례 때마다 신부 쪽에서 신랑 쪽으로 일방적으로 건네지는 선물들을 통해 물질적으로 표현된다. 지위가 같은 두 친족 집단이 혼인을 한 후 불평등한 관계로 바뀌고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브라만의 이상적인 혼인 형태라고 규정한 간야단 혼인과 밀접히 관련된다. 마누법전에는 다 큰 딸을 결혼시키지 않은 브라만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딸을 받아 주는 사위는 장인이 엄청난 죄를 짓지 않도록 구제해 준 은인이기 때문에 신과 마찬가지로 경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즉 신랑 쪽 집단은 신부 쪽 집단에게 은혜를 베푼 우월한 입장으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간야단과 함께 따라오는 온갖 종류의 선물을 받을 권리도 아울러 갖는 것이다. 따라서 힌두의 결혼식은 가족-친족 집단의 지위와 관계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지참금은 자기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위신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동시에 기존의 위계 서열을 새롭게 평가·판단하고 재해석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기도 하다. 카스트 집단들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같은 카스트의 여러 친족 집단들 간의 관계에서 지참금이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지참금 반대 운동에서 주장하는 남녀 불평등과 여성 차별이라는 분석 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던 뒤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 반을 푸른 눈과 갈색 눈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자. 오늘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푸른 눈을 가진 사람보다 낫다는 거야.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보다 깨끗해. 그리고 더 교양이 있단다.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보다 똑똑해. 정말이야. 진짜로 그렇거든.”

갈색 눈의 아이들은 의자에 몸을 더 곧추세우고 앉았다. 푸른 눈의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얼굴을 찡그렸고 불편한 듯 몸을 뒤틀었다. 푸른 눈의 소년 하나가 의자에 첩퍼덕 주저앉았다. “네 눈이 무슨 색이지?” 그가 소년에게 물었다. “푸른 색요.” 소년이 대답했다. “너는 교실에서 그렇게 앉으라고 배웠니?” “아니요.”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은 교실에서 뭘 배웠는지 기억이나 하고 있니?” 그가 학급 아이들에게 물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차린 갈색 눈의 아이들 쪽에서 합창이라도 하듯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왔다. 그 푸른 눈의 소년은 이제 깨끗하게 앉은 채로 손을 책상 위 정중앙에 단정히 포개어 놓았다. 반에서 그와 가장 친한 친구인 갈색 눈의 소년이 그의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멀시하고 엽신여기는 듯한 눈초리로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일은 그렇게 빨리 시작되었다.

<뒷면에 계속>

그날의 규칙을 열거할수록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의 기쁨은 커져 갔고,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의 불편함은 늘어났다. 갈색 눈의 아이들은 교실의 분수식 식수대를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푸른 눈의 아이들은 종이컵을 사용해야 했다. 갈색 눈의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5분 더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점심도 먼저 먹으러 갔으며 점심 먹는 줄에 누구랑 같이 설지 선택할 수 있었고,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었다. 교실 앞쪽에는 갈색 눈의 아이들만 앉을 수 있고, 줄반장도 갈색 눈의 아이들이 맡았다. 푸른 눈의 아이들은 이 중 무엇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일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갈색 눈의 아이들은 푸른 눈의 급우들을 놀려먹는 데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다. 푸른 눈의 아이들을 쉬는 시간에 함께 놀자고 초대할 갈색 눈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였던 사랑스럽고 총명한 푸른 눈의 소녀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거의 정신이 분열될 지경이었다. 갑자기 구부정하게 걷기 시작했고 행동이 어색해졌으며, 뭐든 두 번씩 했고 수업을 따라오는 데 애를 먹었다. 쉬는 시간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던 그 소녀는 전날까지만 해도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갈색 눈의 소녀가 일부러 뺨을 때려 등을 부딪혔다.

[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직업, 결혼, 학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2007년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92%가 한 가지 이상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의 고통은 부당한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도 유사한 경험을 토로한다. 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포라고 할지라도 차별의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같은 민족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북한 이탈 주민도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중국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만, 북한 사투리라는 언어습관 또는 이주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중에서는 백인종이나 황인종보다는 짙은 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말부터 이주 노동자가 한국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일부 중소기업의 작업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던 폭언·폭행 사건이 최근에는 공공장소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2009년 8월, 시내버스 안에서 술 취한 한국인 남성이 인도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그 예이다. 그러한 일을 내버려 두면 한국 사회도 머지않아 인종 간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

In preindustrial societies, social equilibrium* was maintained by assigning different tasks to men and women. In their assigned hunting roles, men were frequently away from home for long periods and centered their lives around the responsibility of bringing food to the family. It was functional for women to be assigned domestic roles near the home as subsistence farmers† and caretakers of children and households. Once established, this functional division of labor was reproduced in societies throughout the globe. Women may have been farmers in their own right, but they were dependent on men for food and for protection. Women's dependence on men in turn produced a pattern in which male activities and roles came to be more valued than female activities and roles.

Similar principles apply to families in contemporary societies. Disruption is minimized, harmony is maximized, and families benefit when spouses assume complementary, specialized, non-overlapping roles. When the husband takes the instrumental role, he is expected to maintain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family by providing food and shelter and linking the family to the world outside the home. When the wife takes the expressive role, she is expected to cement relationships and provide emotional support and nurturing activities that ensure the household runs smoothly. If too much deviation from these roles occurs, or when there is too much overlap, the family system is propelled into a state of imbalance that can threaten the survival of the family unit.

* equilibrium: 균형 상태 † subsistence farmer: 자급자족 농민

[마]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임금이 낮고 고용 보장이 안 되는 일자리를 기피한다.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한다. 기업은 젊은이들의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 기피 현상을 기업 내 투자로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대부분의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 대신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인력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반목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임금의 인력을 쓰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기업의 고용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업이 청년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직 일자리를 과감히 늘리는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뒷면에 계속>

[바]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무게감 있는 이 표현에는 그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상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내가 나뉠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조망하는 것처럼 그도 세상을 보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말이다. 이러한 만남은 대칭성과 상대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서로 주체로 인정해 준다. 이것은 난쟁이 던지기 또는 여타 인간이 단순 노리개로 전락하거나 수단화되는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다. 법정에서 여러 명의 판사가 이런 종류의 전시를 금지한 이유도 인간들이 서로 주체로 대면하며 상대방을 던지기 창이나 그 밖의 물건으로 격하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존엄성을 갖춘 삶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자신들의 의무로 보았기 때문이다.

장터에서 단순히 재미를 위해 난쟁이를 던지는 행위는 전시하는 행위이다. 이때 전시의 성격은 관중 앞에서 무대에 서는 행위와 다르다. 무대에 오른 배우나 곡예사를 관중이 쳐다본다는 사실은 언뜻 보기엔 난쟁이 던지기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존엄성에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왜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난쟁이 던지기에서는 사람들이 난쟁이에게 무슨 행위를 가하는 데 비해 배우나 곡예사는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한다. 곡예사는 스스로를 내보이는 데 반해 난쟁이는 타인이 그를 내보인다. 달리 표현하자면 쇼윈도에 내놓은 물건처럼 전시되는 것이다. 또 배우나 곡예사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펼쳐 보인다. 그들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관중 앞에서 어떤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다. 그들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눈길은 그들의 기량에 감탄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눈길이며 그들은 그런 관중에게 적절한 감사의 제스처로 답례한다. 이러한 상호 간의 시선과 몸짓은 쌍방 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소이며, 이것은 만일 관중이 실망과 비난의 신호로 야유를 보내거나 분노나 반감으로 반응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쌍방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냈다고 해서 전시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존엄성이 무너졌다고 느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반대로 난쟁이의 경우에는 인간 노리개 또는 색다른 던지기 장난감으로 단지 구경을 당할 뿐이다. 난쟁이는 던져져 공중을 날아가는 동안에 관중에게 아무것도 스스로 보여 주지 않는다. 무언가를 보여 주는 사람은 난쟁이를 던지는 사람이다. 따라서 던져진 난쟁이에 떨어지는 시선은 감탄의 눈길이 아니라 색다르고 진기한 광경에 신기해하는 눈길이다. 여흥의 수단과 물체라는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존엄성을 해친다.

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또 있다. 던지기 대회가 더 재미를 유발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던지기 때문만이 아니다. 던져지는 사람이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 더욱 큰 오락 요소가 되는 것이다. 평범한 어린이를 던지는 게임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락과 여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사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진기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던져진다는 데 있다. 누군가를 던졌는데 그가 우연히 이러한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더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난쟁이 멀리 던지기 대회의 핵심은 던져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것 때문에 난쟁이 던지기가 가진 존엄성의 문제에 잔인성의 문제가 추가된다.

[문제 I]

제시문 [가] ~ [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I]

어떤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자. 채용인원 수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신규인력의 월급과 업무효율이며 그 수치는 [표 1]과 같다. 이 기업은 전체 신규인력에 대한 월급으로 최대 월 1억2천만 원을 책정해 두고 있으며, 업무량은 최소 월 186단위 이상 성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채용 비율($\frac{\text{정규직 채용인원수}}{\text{비정규직 채용인원수}}$)은 최소 0.1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

한편 이 기업은 비정규직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생활만족도는 정규직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표 2]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하자.

[표 1] 신규인력 1인당 예상 월급 및 업무효율			[표 2] 비정규직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분류	월급(백만 원)	업무효율(단위/월)	응답자 수(명)	10	16	34	40
정규직	4	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2	4	생활만족도 수준(%)	100	75	50	25

먼저 이 기업이 오직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채용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또한 [표 2]에서 얻은 생활만족도의 평균을 토대로 신규인력의 생활만족도 총량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채용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도 구하시오. 이 비율이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만을 추구할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감하는지 알아보고, 제시문 [마]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